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에 대한 고찰

오화*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국적 재론의 가능성
- III. 국적에 대한 재론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에 유일본으로 전해지는 <유소랑전(劉少娘傳)>의 국적 문제를 검토하여 이 작품이 한국 소설임을 밝혔다.

<유소랑전>은 기존 연구에서 원작의 출처나 원전을 중국에 두고 있다고 논의된 바 있는데 그 근거들을 검토한 결과 아직 국적 문제를 단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중국 문헌에서 <유소랑전>과 유사하거나 혹은 원전이 될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기록도 찾을 수 없는데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텍스트에 주목하여 공간 배치 양상과 호칭 및 어휘 사용 면에서 단서를 찾아보았다.

<유소랑전>의 공간 배치 양상은 중국의 실제 지리적 공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소설에 나오는 ‘남토(南土)’, ‘남주(南州)’, ‘남중(南中)’, ‘월계(越溪)’, ‘금릉부(金陵府)’와 같은 지명이나 명칭에 대한 작가의 착오적 인식, 광둥(廣東)에서 남녕(南寧)까지 가면서 꼭 절강(浙江)과 금릉(金陵)을 경유해야 한다는 중국의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해 볼 때 <유소랑전>의 작가는 중국의 지리·역사적 배경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국 揚州大學校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또 <유소랑전>에 나오는 호칭과 어휘 중에는 중국의 언어적 관습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소설에서 유소랑은 자신을 겸칭하면서 ‘소녀(少女)’와 ‘소제(少弟)’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언어적 관습에 맞지 않는다. 이외에도 소설에는 ‘가돈(家豚)’, ‘노청(老靑)’, ‘제필출취침차(祭畢出就寢次)’ 등 중국의 언어적 관습과 차이를 보이는 어휘나 표현들이 많다. 이런 한국적 색채가 짙은 어휘와 표현들은 <유소랑전>이 충분히 한국 소설일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가 된다.

주제어 : 유소랑전, 신독재수택본 전기집, 국적 문제, 공간 배치, 천지도(天地圖), 언어적 관습

I. 서론

<유소랑전(劉少娘傳)>은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에 수록된 작가 미상의 한문소설로서 현재까지 다른 이본이 발견되지 않은 작품이다.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은 백영(白影) 정병욱(鄭炳昱)이 처음 발굴한 뒤 작품집에 있는 “신독재서(愼獨齋書)”라는 교열기에 주목해서 이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며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¹⁾ 그러다가 4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필사본 소설집은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이란 이름으로 원전이 영인되어 함께 간행²⁾되면서 정식으로 공개되었다.

<유소랑전(劉少娘傳)>은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에 <만복사저포기(萬福寺耆蒲記)> 다음 두 번째로 수록³⁾된 소설로 18면

1) 정학성,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에 대하여』,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 삼경문화사, 2000, p.261.

2) 위의 책.

3) 영인된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의 원전에는 <만복사저포기

정도에 걸쳐 필사되어 있다. 작품의 주인공 유소랑(劉少娘)은 일면식도 없던 약혼자 송효영(宋孝英)이 병으로 죽자 가족의 만류도 마다하고 손수 가서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시집에서 죽으며, 죽은 소랑과 효영은 명계(冥界)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효(孝)·열(烈) 등 유교 이념을 강조하는 이 소설에는 비극적인 현실과 환상적인 모티프가 잘 결합되어 있다. <유소랑전>의 창작 연대는 “17세기 초·중엽 전후로 볼 수 있으며 늦어도 18세기로 넘어가지 않을 것”⁴⁾으로 추정된다.

<유소랑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미비하다. 작품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을 제외하고 <유소랑전> 단일 작품만을 다룬 연구 논문은 한 편 밖에 없다.

정학성은 <유소랑전>을 학계에 소개⁵⁾한 다음 이어 후속 연구에서 작품을 시도하여 작품의 출처와 형성 배경, 내용과 형식상의 성격 및 소설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열녀전과 전기(傳奇)소설 형식이 혼합된 작품의 이중적 성격을 고찰하였고 이율배반적인 작가의식을 논의하였으며

(萬福寺樗蒲記)>, <유소랑전(劉少娘傳)>, <주생전(周生傳)>(일부), <상사동전객기(相思洞錢客記)>, <왕경룡전(王慶龍傳)>, <왕시봉기우기(王十朋奇遇記)>,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 <최문헌전(崔文獻傳)>, <옥당춘전(玉堂春傳)>(낙장) 등 9편의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 외 소품문(小品文), 야담 등 형식의 짧은 글 몇 편과 한시 <거시안마별인귀(去時鞍馬別人歸)>도 들어 있다.

4) 정학성, 『전기소설 <유소랑전(劉少娘傳)> 연구』, 『고소설연구』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p.110. 정학성은 <유소랑전>이 수록된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의 연조와 소설에서 명나라 및 명나라 관직제가 작가와 독자에게 익숙하게 통용되는 배경적 현실을 고려해서 작품의 창작 연대를 이와 같이 추정하였다.

5) 정학성,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에 대하여』, 앞의 책; 정학성,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의 17세기 소설집으로서의 성격과 위상, 『고소설연구』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정학성은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에 대해 살펴보면서 거기에 수록된 <유소랑전>의 내용을 함께 소개함과 동시에 이 작품은 아직 원전을 확인할 수 없기에 국적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열녀전의 전통 및 소설 발달사 측면에서 소설사적 의미와 가치를 밝혔다. 또 소설 속 인물과 행적이 『명사(明史)』에 있는 실존 인물과 실제 사실에 일부 의존하고 있다는 점, 정혼자를 위한 순절이 조선에서는 희귀하지만 중국에서는 좀 더 보편화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소랑전>이 원작의 출처나 원전을 중국에 두고 있다고 추정하였다.⁶⁾

최근에 중국학자 담홍매는 논문에서 <유소랑전>을 단편적으로 언급하였는데 국적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한국 작품으로 간주하면서 조선 시대 한문소설의 맥락에서 주인공 유소랑의 정절 의식을 살펴보았다.⁷⁾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일본으로 전해지는 <유소랑전>은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작품에도 특이한 부분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소랑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 이는 아마 <유소랑전>이 그동안 국적 문제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작품의 국적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필자는 <유소랑전>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어느 나라 작품으로 봐야 할지 궁금해졌고 정확성의 근거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어떠한 중국 소설 목록에서도 <유소랑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유소랑전>은 한국 소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작품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유소랑전>⁸⁾의 국

6) 정학성, 앞의 논문(2003). 정학성은 <유소랑전>을 중국에 출처나 원전을 둔 작품으로 보고 있지만 이 소설이 중국 작품인지 조선에서 중국 원작을 개작한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을 내리지 않았다.

7) 譚紅梅, 『朝鮮朝漢文小說男性作家筆下的女性形象』,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43卷 第5期, 2010. 담홍매는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유소랑전>을 한국 소설로 취급했는데 아마 <유소랑전>의 유일본이 한국에 있다는 데 주목한 듯하다.

적 문제를 분명히 하여 한국 소설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소랑전>의 국적 재론의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텍스트에 주목하여 공간 배치 양상과 호칭 및 어휘 사용 면에서 국적을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공간 배치 양상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실제 지리적 공간과의 차이점을 구명하고 그다음 작품에 나오는 호칭과 어휘 사용을 중국의 언어적 관습과의 대비 속에서 고찰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작품의 연구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국적 재론의 가능성

정학성의 연구는 현재까지 <유소랑전> 단일 작품만을 다룬 유일한 연구로서 작품의 성격과 작가 의식을 살피고 소설사적 가치를 구명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그는 <유소랑전>이 중국에 원작의 출처나 원천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몇 가지 문헌 기록과 배경적 사실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부분은 재고할 여지가 있는 듯하다.

정학성은 소설 속 주인공의 아버지 유위(劉偉)가 『명사(明史)』 『열전』에 나오는 유위(劉偉)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직, 활동 연대, 고향 등 면에서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명사(明史)』 『열전』 중 ‘열녀’조에 <유소랑전>과 흡사하게 정혼한 약혼자가 납폐를 하고 죽자 순절(殉

8) 본고에서는 <유소랑전>이 수록된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을 영인 교주한 정학성,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삼경문화사, 2000)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책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번역문을 참조하되, 필자가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

節)한 열녀의 행적이 나온다는 점⁹⁾, 정혼한 약혼자가 죽은 후 순절하는 경우는 조선의 열녀전·정표(旌表) 등 관련 연구에서 보고된 것이 없어 희귀하지만 중국에서는 귀족층을 중심으로 좀 더 보편화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에 중국의 역사 인물을 수용해서 소설을 창작하는 방법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 시대 많은 소설들 예컨대 <사씨남정기>, <소현성록>, <창선감의록>, <임씨삼대록> 등 작품에는 모두 중국 역사의 실존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또 <화산기봉>과 <옥환기봉> 같은 경우에는 『후한서(後漢書)』와 『당서(唐書)』 등 역사서를 바탕으로 중국의 역사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¹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순절(殉節)형 열녀가 열녀의 전형으로 부각되면서 열녀전에 많이 입전¹¹⁾되었고 이는 미혼 여성의 경우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열부이유인전(烈婦李孺人傳)>에도 정혼한 약혼자를 따라 순절한 열녀 이유인(李孺人)의 행적이 입전되어 있다.¹²⁾ <열부이유인전(烈婦李孺人傳)>에는 이유인의 열(烈)과

9) 정학성은 『명사(明史)』 「열전」 「열녀」조에 실린 임정녀(林貞女)의 행적에 주목하여 부모가 정해진 약혼자가 납폐를 마치고 죽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절(殉節)하는 대목은 <유소량전>과 비슷하다고 했다. 또 임정녀의 부친이 남방 지역에서 참정을 지냈고 시부도 중앙 관리로 이 지역에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유소량전>의 인물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친이 생존해 있다는 면에서 소설과 다르다고 했다. (정학성, 앞의 논문(2003), p.108)

10)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31, 우리문학회, 2010, pp.99-108.

11) 박동욱, 「해환 李用休 烈女傳의 입전 의식」, 『동방학』 1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4, p.52.

12) 이용휴의 <열부이유인전(烈婦李孺人傳)>에 입전된 열부 이유인(李孺人)은 이제정(李載鼎)의 둘째 부인 자리로 시집 가기로 했는데 일면식도 없던 이제정이 혼인을 앞두고 병으로 죽자 스무날을 굶어서 결국 죽고 말았다. (烈婦李孺人……八歲見其父

효(孝)가 모두 부각되어 있으며 죽기 전에 영결 편지를 쓴 대목도 함께 나와 있다는 면에서 <유소랑전>과 좀 더 친연성을 보이기도 한다.¹³⁾

따라서 이런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¹⁴⁾ <유소랑전>이 원작의 출처나 원천을 중국에 두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¹⁵⁾나 『중국고대소설총목(中國古代小說總目)』¹⁶⁾, 『중국통속소설서목(中國通俗小說書目)』¹⁷⁾에서 모두 <유소랑전(劉少娘傳)>이란

執喪過制，泣請小節，因隨侍倚廬不離……十九歸李生載鼎稱繼矣。李生前有疾，至是復加……無何，李生訃至，死之日即夢之日也……或陽啜而陰哇，水漿不下咽者，幾二十日，羸削如人腊……孺人死後，於所謂納幣函中，得一書。盖告訣於李生父母者，而家人初未知也……) (이혜순·김경미, 『烈婦李孺人傳』,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pp.220-225. 참조.)

13) 문헌적 연조로 봤을 때 이용휴의 <열부이유인전(烈婦李孺人傳)>이 <유소랑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조선 후기 열녀전의 맥락에 비추어볼 때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은 열녀가 부각되고 또 이런 작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4) 정확성은 상술한 세 가지 근거 외에 <유소랑전>의 서술 구조가 “중반부 이후에서는 대화와 장면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극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명나라 때 죽은 약혼자를 위한 여인의 순절을 다룬 회곡이 여러 편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형성 과정에서 회곡(극)의 영향도 일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확성, 앞의 논문(2003), p.109.) 하지만 대화와 장면이 연속 이어지는 서술 방식은 회곡(극)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전 소설 및 조선 후기 열녀전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이용휴의 <열부이유인전(烈婦李孺人傳)>에서도 이런 서술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아직까지 <유소랑전>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가진다고 확정할 수 있는 중국의 회곡(극) 작품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점들은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를 단정 짓는 근거가 여전히 충분치 않음을 말해준다.

15) 江蘇省社會科學院 編, 오순방 외 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1-5卷,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3-1999.

16) 石昌渝 主編, 『中國古代小說總目』1-3卷, 山西教育出版社, 2004.

17)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外二種)』, 中華書局, 2012; 최용철·박재연 輯錄,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書目』, 『중국소설회모본』, 강원대학교출판부, 1993, pp.209-260.

제명을 찾을 수 없었고 소설 속 주인공 ‘유소랑(劉少娘)’이나 ‘유계선(劉桂仙)’이란 인명도 찾을 수 없었다.¹⁸⁾

또 ‘중국기본고적고(中國基本古籍庫)’나 ‘사고전서(四庫全書)’에서 검색을 해 봐도 <유소랑전(劉少娘傳)>이란 제명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유소랑(劉少娘)’이란 인물에 관해 송나라 때 왕흥약(王欽若)의 『책부원귀(冊府元龜)』에서 당나라 정관(貞觀) 21년 2월에 활주(滑州) 조성(胙城)에 사는 유소랑(劉少娘)이 어머니에 대한 효행으로 표창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온다.¹⁹⁾ 하지만 이 기록이 <유소랑전>과 깊은 친연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소랑전>과 유사하거나 혹은 원전이 될 수 있다고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기록은 찾을 수 없고 중국에 원작의 출처나 원전을 두고 있다는 근거도 역시 부족한데 작품의 국적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텍스트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공간 배치 양상과 호칭 및 어휘 사용 면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고자 한다.

18) 조희웅의 『고전소설 연구보정』상(박이정, 2006)에서는 510-1번째 고전소설로 <유소랑전>을 소개하면서 정확성의 앞의 논문(2003)을 인용하여 작품의 창작 연대만 제시했다.

19) (貞觀)二十一年二月甲戌,賜滑州胙城女子劉少娘粟帛仍表其閭旌孝行也,少娘母夏侯碎金亦以至孝聞少娘年十五而母亡遂廬於墓側負土成墳。(王欽若, 『冊府元龜』 권 138)

Ⅲ. 국적에 대한 재론

1. 공간 배치 양상과 실제와의 거리

<유소랑전>의 공간은 중국의 남방 지역을 배경으로 하면서 서사가 진행된다. 작품에서 구체적 지리 공간과 연관된 서사 단락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랑은) 집이 본시 남토(南土)에 있는데 월계(越溪)에서 태어나서 자랐다.²⁰⁾

② 참정이 살아 있을 적에 광둥(廣東) 포정사(布政使) 송창(宋彰)이 그 아들을 위하여 유씨에게 혼인을 청하였다. 창(彰)의 아들 효영 또한 영준한 선비이다. 평소에 광둥(廣東) 땅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기에 참정은 어진 사위를 얻는 것이 기꺼워 혼인을 허락하고 납폐를 행하였다.²¹⁾

③이 해 삼월 보름날 혼례를 올리려고 하였는데 그 하루 전날 참정이 마침 후모(後母)의 상을 당하여 온 집안을 데리고 남주(南州)로 돌아가고 말았다. 광둥(廣東)에서 절강(浙江)까지 거리가 이천 여리나 되는지라 소식이 묘연하여 아득히 통하지 못하고 결혼 날짜는 까마득하게기약도 없이 일 년을 지나게 되었다.²²⁾

④ 그 집 하인이 편지를 가지고 절강(浙江)에 당도하니 참정이 죽은 지 이미 두 달이 지나 있었다.²³⁾

20) (少娘)家本南土, 生長越溪. (정학성, 앞의 책, p.49. 이하 인용문의 표점, 밑줄 등은 필자가 첨가했음을 밝혀둔다.)

21) 當參政在世之日, 布政使宋彰, 爲其子求婚於劉. 彰之子孝英, 亦英俊士也, 素知名於廣東, 故參政樂得賢壻. (위의 책, p.49.)

22) 欲於是年三月望日, 行奠雁之禮. 前此一日, 參政適遭後母之喪, 舉家歸南州. 廣東去浙江幾至二千餘里, 消息杳杳, 漠然不通, 結褵之日, 遼遠無期而居一年. (위의 책, p.49.)

23) 其家蒼頭, 賫書來到浙江, 則參政之沒, 月已再矣. (위의 책, p.50.)

⑤ 포정사가 남녕(南寧) 지부로 좌천을 당해 가는 길에 절강(浙江)을 경유하게 되자, 먼저 하인을 보내 지나다 목을 뜻이 있음을 알렸다. 승은 머슴아이들을 시켜 사랑채를 소제하고 문밖에 나가 기다렸다.²⁴⁾

⑥ 제문은 다음과 같다. “……아무개는 임금님의 견책을 만나 강절(江浙)을 다시 건너가며 길이 금릉(金陵)을 지나게 되어 옛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지만 그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한스럽소…….”²⁵⁾

⑦ 제를 마치고 취침하려던 차에 효영을 불러 승을 청한 다음 이야기를 나누었다. “늙은이가 이번에 남중(南中) 땅으로 귀양 가라는 명을 받았으니 낮은 지방에 유락하여 복궐로 살아 돌아가기는 기약할 수가 전혀 없게 되었네…….”²⁶⁾

⑧ 그런데 칠월 보름날 효영이 남녕(南寧)으로부터 돌아오다가 장려(瘴癘)에 걸려 금릉부(金陵府)에서 객사하고 말았다.²⁷⁾

⑨ 승이 이때 마침 금릉(金陵)에 있는 친족이 편지로 부르는 명을 받고 그 집에 가서 수십 일째 묵고 있던 차였다. 효영의 상(喪)을 듣고는 달려가 염습하는 일을 친히 집행하고 역양산(歷陽山)²⁸⁾ 아래에 임시로 묻었다.²⁹⁾

⑩ (소랑은) 승, 애경 등과 더불어 함께 금릉(金陵)에 가서 고향으로 운구한 다음 효영을 선산 원편에 묻었다.³⁰⁾

24) 布政使左遷南寧知府，道由浙江，先遣蒼頭，報以經宿之意。崧教家童，淨掃外室，出侯于門外。(위의 책, p.51.)

25) 文曰：“……某一從恩遣，再渡江浙。路由金陵，寄宿舊宅，斯人不見，懷恨良多……”(위의 책, p.51.)

26) 祭畢出就寢次，招孝英，請崧會敘曰：“老夫今者 受殃南中 流落殊方 生還北關 頓無前期……”(위의 책, p.51.)

27) 七月望，孝英自南寧歸，傷於瘴癘，道死于金陵府。(위의 책, p.51.)

28) 원문에서는 ‘역양산(歷陽山)’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문헌에서도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역양산(歷陽山)’의 오기인 듯하다.

29) 崧是時適承父黨之在金陵者，以書招之，就其家留泊者數旬。聞孝英之喪，往赴之，斂襲之事，親自執焉，權厝於歷陽山下。(정학성, 앞의 책, p.51.)

30) (少娘)與崧及愛瓊等，同往金陵，昇櫬而歸葬孝英于先壟之左。(위의 책, p.53.)

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소설에는 중국 남방 지역의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다. 작품에는 선후로 남토(南土), 월계(越溪), 광둥(廣東), 남주(南州), 절강(浙江), 남녕(南寧), 강절(江浙), 금릉(金陵), 역양산(歷陽山) 등의 지명들이 나온다. 이런 실제적인 공간 배치와 이동 경로는 작품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대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①과 ③에서 볼 수 있다시피 유소량은 집이 남토(南土)에 있으며 월계(越溪)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참정 후모의 상을 당하여 남주(南州)로 간다. 이 이동경로를 소설에서는 광둥(廣東)에서 절강(浙江)까지 이동했다고 밝히고 있다.

‘남토(南土)’는 춘추 전국(春秋戰國), 당(唐)나라, 청(淸)나라 등 시기에 남긴 기록을 보아 오랫동안 중국 ‘남방 지역(南方地區)’을 가리키는 말³¹⁾로 사용되었다. ‘월계(越溪)’는 “광둥성 광주시 동북 지역(廣東廣州市東北)”³²⁾을 가리켰다는 기록도 있지만 아주 오랜 세월동안 춘추 시대 월나라 미인 서시(西施)가 완사(浣紗)하던 곳³³⁾을 지칭하였다. ‘월계’는 지금의 “절강성 영해현 동남쪽에 있는 월계향(浙江寧海縣東南越溪鄉)”³⁴⁾을 가리키는데 서시의 미담과 더불어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³⁵⁾이다.

31)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漢語大詞典(第二卷)』1,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漢語大詞典出版社 聯合出版(海外版), 1987, p.883.

32) 史爲東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p.2492.

33)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漢語大詞典(第二卷)』9,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漢語大詞典出版社 聯合出版(海外版), 1993, p.1115.

34) 史爲東 主編, 앞의 책(下), p.2492.

35) ‘월계’는 중국 고대 문인들의 시문에도 서시가 완사하던 곳으로 종종 등장했는데 이 백(李白)의 <送祝八之江東賦得浣紗石>에 ‘西施越溪女, 明艷光雲海’란 시구가 있고 명나라 양진어(梁辰魚)의 희곡 <浣紗記>에도 ‘妾家越溪有采蓮二曲, 試爲大王歌之.’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 인식과 달리 <유소량전>의 작가는 ‘월계’를 ‘광둥’ 지역으로만 보고 있는데 ‘월계’에서 ‘남토’까지 이동 경로를 ‘광둥’에서 ‘절강’으로 이동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월계’가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절강’ 지역으로 인식되고 그 인식이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남주(南州)’는 당(唐)나라나 남조(南朝) 때에 ‘사천성 남천현(四川南川縣)’이나 ‘광둥과 광서(兩粵)’ 등 지역을 가리켰다는 기록도 있지만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남방 지역(南方地區)’을 가리키는 ‘남토(南土)’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³⁶⁾ 하지만 어느 시기에도 ‘절강(浙江)’ 지역만을 가리켰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유소량전>의 작가가 중국 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거나 지명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⑤와 ⑦에서 볼 수 있다시피 광둥 포정사(布政使) 송창(宋彰)은 좌천되어 남녕(南寧) 지부(知府)로 가는데 소설에서는 이를 ‘남중(南中)’ 땅으로 간다고 했다. 명나라 때 ‘남녕(南寧)’은 지금의 “광서좡족자치구 남녕시(廣西南寧市)”³⁷⁾ 지역을 가리킨다. ‘남중(南中)’이 ‘남녕(南寧)’ 지역만을 가리켰다는 기록은 없는데 이 부분 역시 작가가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중(南中)’은 삼국(三國) 시대에 ‘사천성 대도하 이남 지역과 운남성, 귀주성(四川大渡河以南及云貴兩省)’을 가리켰다는 기록도 있지만 오랜 세월 ‘남방 지역’을 지칭³⁸⁾하였다. 당나라, 송나라 및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남중(南中)’은 앞에서 살펴봤던 ‘남토(南土)’나 ‘남주(南州)’처럼 ‘남방 지역’을 가리키는 말³⁹⁾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36)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앞의 책(1), p.889.

37) 史爲東 主編, 앞의 책(下), p.1792.

38) 위의 책, p.1788.

39)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앞의 책 (1), p.885. 당나라 왕건(王建)의 <형문행(荊門行)>에 있는 ‘南中三月蚊蚋生, 黃昏不聞人語聲’, 송나라 진선(陳善)의 <문슬신어(捫虱新語)>에 있는 ‘南中花木, 有北地所無者, 茉莉花, 荅笑

지명은 특수한 지리적 공간의 역사와도 관련되는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인할 가능성은 있다.⁴⁰⁾ 흥미로운 것은 소설에서 오랜 세월내려오면서 중국의 ‘남방 지역’을 지칭하는 말인 ‘남토(南土)’, ‘남주(南州)’, ‘남중(南中)’을 각각 서로 다른 의미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남토(南土)’, ‘남주(南州)’, ‘남중(南中)’ 등은 중국 역사에서 오랜 시기를 거쳐 오면서 넓은 범위에서 중국의 남방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서로 다른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체적 지명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작가가 중국 남방의 지리적 공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남토(南土)’, ‘남주(南州)’, ‘남중(南中)’ 이런 말들이 모두 큰 의미에서 중국의 남방 지역을 가리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북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일반적인 공간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소량전>의 작가는 중국의 일반적인 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⁴¹⁾ 당

花, 閨提花, 渠那異花之類’, 청나라 포송령(蒲松齡)의 <요재지이(聊齋志異)>에 있는 ‘踰歲, 春將半, 始載南中異卉而歸, 於都中設花肆, 十日盡售, 復歸藝菊.’ 등에서 ‘남중(南中)’은 모두 ‘남방 지역’을 가리켰다.

40) ⑨의 대목에서 나오는 ‘역양산(歷陽山)’ 역시 작가가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에서 ‘금릉(金陵)’ 근처에 있는 산으로 나온 ‘역양산(歷陽山)’은 실제상 ‘금릉(金陵)’이 아니라 ‘안휘성 화현(安徽和縣)’에 있다. (史爲東 主編, 앞의 책(上), p.369. 참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중국 사람일 경우에도 자세한 조사가 없는 경우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로 논의하지 않겠다.

41) 중국 현지인일 경우 이런 일반적인 지리적 인식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일 경우 워낙 중국의 지명이 복잡하고 헛갈리기 쉬운 관계로 잘못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지명 표기에서 한 글자 차이로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을 지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작가에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유중(柳中)’, ‘유주(柳州)’, ‘유자(柳子)’ 등 지명은 한 글자 차이지만 각각 “신강위구르자치구 선선현 노극삼진(新疆鄯善縣魯克沁鎮)”, “광서성 유주시(廣西柳州市)”, “안휘성 수계현 유자진(安徽濉溪縣柳孜鎮)” 등 서로 다

시 중국 사람들에게 절강 지역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월계(越溪)’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⑤와 ⑥에서는 송창(宋彰)이 광둥(廣東)에서 남녕(南寧)으로 좌천되어 가면서 절강(浙江)과 금릉(金陵)을 경유하게 되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녕(南寧)은 광서(廣西)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광서(廣西)는 광둥(廣東)과 인접해 있다. 하지만 절강(浙江)은 광둥, 광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금릉(金陵)은 지금의 강소성 남경(江蘇南京)의 별칭⁴²⁾으로 역시 광둥, 광서와 거리가 매우 멀다. 광둥에서 광서로 좌천되어 가고 빠른 시일 내에 부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멀고 먼 길을 에돌아 절강과 금릉을 경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일이다.

또 ⑧에서는 효영이 남녕(南寧)으로부터 돌아오다가 금릉부(金陵府)에서 객사했다는 대목이 있다. 효영은 아버지를 모시고 남녕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픈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이다.⁴³⁾ 이런 상황에서 남녕에서 광둥으로 오면서 또 멀리 에돌아 금릉부(金陵府)를 경유한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점들은 아래의 지도를 통해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른 지역들을 가리킨다. ‘유중(柳中)’, ‘유주(柳州)’, ‘유자(柳子)’ 등 지명이 지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史爲東 主編, 앞의 책(下, p.1792.)을 참조했다.

42) 위의 책, p.1610.

43) 祭畢出就寢次, 招孝英, 請崧會敘曰:“……老夫到官後, 欲送豚兒, 歸奉病妻……”(정학성, 앞의 책, p.51.)

<지도1> 明代前期形勢(1435年)(部分)44)



송창은 광둥에서 남녕으로 좌천되어 가면서 절강과 금릉을 경유하고, 효영은 남녕에서 광둥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러 오면서 금릉을 지난다는 것은 금릉이 광둥에서 광서에 위치한 남녕까지 가거나 오는 길에 꼭 경유해야 할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다.⁴⁵⁾ 하지만 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광둥과 광서는 인접해 있으며 육로나 수로를 통해 모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반면에 절강과 금릉은 광둥과 광서에서 상당히 먼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둥에서 남녕까지 가면서 꼭 절강과 금릉을 경유해야 한다는 이동 경로는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다.

또 금릉부(金陵府)라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릉부(金

44)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地圖集』下, 中國地圖出版社, 1990, pp.71-72. (이동 경로 표기-필자)

45) 효영이 송창과 함께 광둥에서 절강과 금릉을 거쳐 남녕까지 간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남녕에서 광둥으로 돌아올 때에 아마 절강도 경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1>과 <지도2>의 이동 경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표기한 것임을 밝혀둔다.

陵府)라는 명칭은 오대십국(五代十國) 때인 920년부터 불리지기 시작하다가 937년에 와서 강녕부(江寧府)로 이름을 바꿨다.⁴⁶⁾ 1129년에는 또 건강부(建康府)로 이름을 바꿨다가 명나라가 건립된 후에는 남경을 줄곧 응천부(應天府)라 불렀다.⁴⁷⁾ 따라서 명나라 경태(景泰, 1450-1457) 연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 몇 세기 전에 사용했던 금릉부(金陵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 또 응천부(應天府)가 명나라 초기의 수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사람이라면 아마 이름을 응천부로 고친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소량전>의 작가는 명나라를 배경으로 다루면서도 응천부(應天府)라고 하지 않고, 역사 기록에 나올 법한 몇 세기 전에 사용했던 금릉부(金陵府)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는 중국의 현실에 입각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⁴⁸⁾

상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유소량전>의 작가는 중국의 지리·역사적 배경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이며⁴⁹⁾, 그의 중국 공간에 대한 인식은 역사적인 기록 혹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

46) 史爲東 主編, 앞의 책(下), p.1611.

47) 史爲東 主編, 앞의 책(上), p.1079. 명나라 때는 남경을 응천부(應天府)라고 부르다가 청나라 순치제 2년(1645년)에 와서 다시 강녕부(江寧府)로 이름을 바꿨다.

48) ‘中國基本古籍庫’에서 명청(明清) 시기 문학류 작품을 대상으로 ‘금릉부(金陵府)’를 검색했을 때 15군데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었지만 이 중에 명나라나 청나라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었다. 그리고 ‘응천부(應天府)’를 검색해보니 1089군데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 ‘금릉부(金陵府)’란 말은 간혹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의 <次李白勞勞亭十韻月課>에서도 ‘都會金陵府, 行人不暫停.’이란 시구를 확인할 수 있다. (李好閔, 『五峯先生集』 권6)

49) 일부 전기(傳奇) 소설에서 비현실적인 공간 설정은 환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서사 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다. (박일용, 「<주생전>의 공간 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p.146 참조) 하지만 <유소량전>에서 실제와 차이가 나는 공간 설정이 당시 중국 사람들의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인식과 배치된다는 점, 작품의 초반과 중반은 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열녀전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작가의 의도적 설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해금정책을 시행하여 해로를 통제했고,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긴 뒤에는 외국인의 경우 설사 조선의 사절단이라고 해도 정해진 북방 내륙루트(의주-요양-산해관-계주-북경)를 따라야 했으며 중국의 남방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⁵⁰⁾ 그럼에도 조선 시기 전기(傳奇) 소설 중에는 <주생전>, <위생전>, <최척전> 등 중국의 남방 지역을 공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훌륭한 작품들이 창작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소설들의 공간 이미지구축은 최부(崔溥, 1454-1504)의 『표해록(漂海錄)』이나 『전등신화』같은 여러 문학과 역사 텍스트, 그리고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등 지도나 그림을 통해 습득⁵¹⁾한 공간 지식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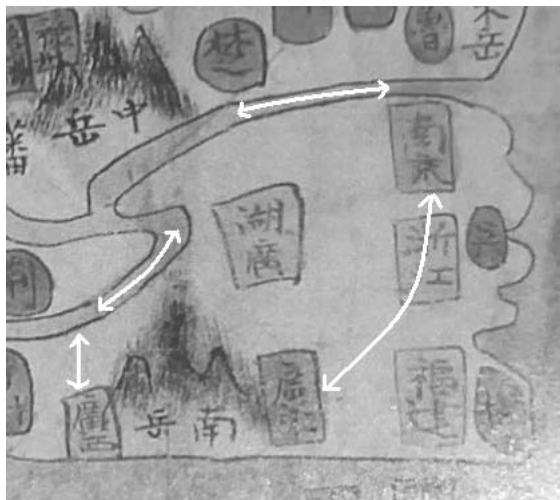
하지만 이런 여러 부류의 공간 지식과 이미지들에 의해 조합된 공간은 “주체적으로 파악된 공간”⁵²⁾이며 “지리적 심상을 통해 상상적으로 받아들”⁵³⁾인 것으로 객관적인 실제 공간과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 <유소랑전>의 실제와 어긋나는 공간 배치 양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길을 멀리 에돌아가는 특이한 이동 경로는 혹시 조선시대에 널리 향유되었던 ‘천지도(天地圖)’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덧붙여본다.

50) 신태수, 「외국공간에 대한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품화」,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p.8.

51)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학회, 2002, pp.295-296)와 신태수, 위의 논문(p.32.) 참조.

52) 신태수, 위의 논문, p.32.

53) 박일용,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중국의 강남(江南) 체험과 강남 형상」, 『한국고전연구』 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p.16.

〈지도2〉 天地圖(部分)⁵⁴⁾

송창은 광둥에서 광서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위의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광둥과 광서 사이에는 남악(南岳)이 놓여 있다. 그리하여 작가는 그들로 하여금 절강을 거쳐 남경에서 양자강(揚子江)의 수로를 이용하여 광서에 가도록 설정한 것이라 짐작된다. 송효영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인데 광서에서 떠나 양자강의 수로를 통해 남경까지 오는 것이다. 이때 양자강 수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주생전>에서 배가 하룻밤만에 악양(岳陽)에서 천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당(錢塘)까지 쓴살같이 흘러온 대목, 이백의 <조발백제성(朝發白帝城)>⁵⁵⁾에서 ‘강릉 천리 길을 하루에 돌아왔다(千里江陵一日還)’와 같은 시구나 표현의 영향을 받은 것⁵⁶⁾일 수도 있겠다.

54) 李燦 著,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1, p.24. (이동 경로 표기-필자)

55) 朝鮮白帝彩雲間, 千里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盡, 輕舟已過萬重山. (李白, 『李太白集』 권20)

56) 신태수는 이백의 <조발백제성(朝發白帝城)>에서 양자강의 빠른 물살을 보여주는 표현은 <주생전>에서 급류에 배가 빠르게 흘러가는 묘사 방식의 원형을 이룬다고

2. 호칭과 어휘 사용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소랑전>의 공간 배치와 이동 경로는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고찰하려고 하는 것은 소설 속 호칭과 어휘 사용 문제인데 <유소랑전>에 나오는 호칭과 어휘 중에는 중국의 언어적 관습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1) 호칭 관련 문제

<유소랑전>에서 유소랑은 자신을 지칭하면서 ‘소녀(少女)’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桂仙)仍進白于夫人前曰:“少女不福, 今喪郎君……” 57)

②桂仙更前曰:“少女雖曰女兒, 亦有人心, 豈事二夫者也……” 58)

③桂仙拜辭于夫人前曰:“少女不孝, 在平日不能甘旨, 奉養左右……少女之身, 義當就養……少女之事, 實爲狼狽.” 59)

④(桂仙)又上姊兄梅仙書曰:“不孝兒桂仙, 謹齋沐上書于天只座下, 少女桂仙, 三生薄明, 一身奇險, 早喪所天……” 60)

한국의 경우 ‘소녀(少女)’의 사전적 의미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계집아이”⁶¹⁾이다. 조선 시대에 ‘소녀(少女)’라는 단어는 ‘소녀(小女)’와 혼용될 때가 많았다. ‘소녀(小女)’의 사전적 의미는 “①키나 몸집이

보았다. (신태수, 앞의 논문, p.24.)

57) 정학성, 앞의 책, p.52.

58) 위의 책, p.52.

59) 위의 책, p.53.

60) 위의 책, p.54.

61)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중, 두산동아, 1999, p.3514.

작은 계집아이 ②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윗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⁶²⁾이다. 즉 위의 인용문에서 ‘소녀(少女)’는 여자가 자신을 겸칭하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소녀(少女)’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나 어린 딸’⁶³⁾을 가리킨다. 또 ‘소녀(少女)’는 “①제일 어린 딸 ②어린 딸 ③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딸을 낮추어 이르는 표현”⁶⁴⁾으로 쓰이며 ‘소녀(少女)’와 ‘소녀(小女)’는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혼용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나이가 어린 직계 친척을 지칭할 때 앞에 ‘소(小)’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소서(小婿)’, ‘소질(小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겸칭으로 쓰일 수 없다.⁶⁵⁾ ‘소녀(小女)’는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가 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추어 이를 때 많이 쓰는 말로서 일반적인 경우에 자신을 겸칭할 수 없지만 조선시대에는 흔히 젊은 여자가 윗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겸칭하는 말로 쓰였던 것이다.⁶⁶⁾

‘중국어본고적고’에서 명청(明清) 시기 문학류(文學類) 작품을 대상으로 ‘소녀(少女)’를 검색해 본 결과 출처가 도합 1688군데 나왔지만 그 중에서 자신을 겸칭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리고 ‘소녀(小女)’를 검색해 보니 출처가 도합 2250군데 나왔는데 그 중 딱 한 군데에서 자신을 겸칭하는 용례를 찾을 수 있었다.

62) 위의 책, p.2083.

63)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앞의 책(2), p.1647.

64) 위의 책, p.1589.

65) 劉宏麗, 『明清敬謙語研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p.46.

66) 韓在均, 『漢韓親屬稱謂中敬·謙稱的對比』, 『漢語學習』2000年 第1期, 2000, p.29.
참조.

那會主走近前,倒身下拜奏道:“父王,乞赦少女萬千之罪……”⁶⁷⁾

위의 용례는 아주 특이한 용법으로 공주가 부왕에게 하는 말이며『한어 대사전(漢語大詞典)』에서도 유독 이 용례만 들어 자신에 대한 겸칭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공주와 왕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쓰일 수 없는 것이다.⁶⁸⁾

앞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시대에 여자는 겸칭으로 ‘소녀(少女)’ 혹은 ‘소녀(少女)’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는 <오유란전(烏有蘭傳)>이나 <중옥전(鍾玉傳)> 과 같은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①蘭低聲懇告曰: “少女愚昧, 未知何罪.”⁶⁹⁾<烏有蘭傳>

②美人半含嬌態, 半含羞容, 低眉而答曰:“少女本是良家女子, 早失怙恃, 長於外姓四寸家……”⁷⁰⁾<烏有蘭傳>

③(香蘭)以細聲答曰: “我人非鬼, 何用易呢? 幸勿驚訝, 聽我情懷, 亭之東第一巷, 竹裡茅屋, 卽少女之家也. 望月樓宴席, 抱琴前進者, 亦少女也. 少女

67) 吳承恩, <西遊記> 第九十四回.

68) 이 외 다른 사전들도 함께 검토해 봤는데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文大辭典(普及本)』3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pp.7632.52-7632.79.)에서 ‘소녀(少女)’의 사전적 의미는 ‘어린 딸을 가리키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딸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고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 『現代漢語詞典(第6版)』(商務印書館, 2012, p.1433.)에서 ‘소녀(少女)’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딸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또 教育部重編國語辭典編輯委員會 編, 『(重編)國語辭典』4 (臺灣商務印書館, 1982, p.3129.)에서 ‘소녀(少女)’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딸을 낮추어 이르거나 나이가 제일 어린 딸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의 세 사전에서 ‘소녀(少女)’의 사전적 의미에는 모두 여자가 자신을 겸칭할 때 쓰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았다.

69) 장효현 · 윤재민 · 최용철 · 심재숙 · 지현숙 · 이기대,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愛情世態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p.906.

70) 위의 책, p.887.

本以良家女，早失怙恃，托身無處，奇食於退妓之家……”⁷¹⁾<鍾玉傳>

<유소랑전>에서는 여자가 자신을 겸칭하면서 중국 작품들과 달리 ‘소녀(少女)’라는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지에서 자신을 지칭하면서 ‘소제(少弟)’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不孝兒桂仙上謹書：“少弟桂仙，謹百拜上書于姊兄恭人粧下……薄命少弟，罪大天地……少弟桂仙百拜。”⁷²⁾

여기에서 ‘소제(少弟)’는 ‘소제(小弟)’와 혼용된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소제(小弟)’의 사전적 의미는 “①나이가 가장 어린 아우 ②말하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윗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⁷³⁾이다. 한국의 경우 남자들만이 ‘소제(小弟)’로 자신을 겸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찾아볼 수 없는데 <유소랑전>에서 유소랑이 자신을 가리켜 ‘소제(少弟)’라고 한 것도 틀린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중국에서 ‘소제(少弟)’는 ‘어린 남동생’을 가리키고⁷⁴⁾, ‘소제(小弟)’는 ‘어린 남동생이나 젊은 남자 종업원 혹은 남자들 사이 겸칭’ 등 의미⁷⁵⁾로 쓰인다. 중국의 경우 ‘소제(少弟)’와 ‘소제(小弟)’는 모두 여자가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쓰일 수 없다.⁷⁶⁾

71) 위의 책, pp.846-847.

72) 정학성, 앞의 책, p.54.

73) 국립국어연구원 편, 앞의 책(중), p.3548.

74)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앞의 책(2), p.1650.

75) 위의 책, p.1602.

76) ‘중국어본고적고’를 검색해봐도 여자가 ‘소제(少弟)’나 ‘소제(小弟)’로 자기를 지칭한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2) 기타 어휘 사용

<유소랑전>은 호칭뿐만 아니라 기타 어휘 사용 면에서도 중국의 언어적 관습과 차이를 보인다. 소설에서는 자기의 아들을 낳추어 이르면서 ‘가돈(家豚)’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宋公不知參政之沒，修一書爲遺蒼頭，要其贅子之約，其書曰：“……某廢官天末，末由奔慰，瞻望南表，忡悵而已。家豚年長，有室已晚……”⁷⁷⁾

한국에서 ‘가돈(家豚)’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아(家兒)’와 같은 뜻⁷⁸⁾으로 ‘남에게 자기의 아들을 낳추어 이르는 말’⁷⁹⁾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가돈(家豚)’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자기의 아들을 낳추어 말할 때 ‘가돈(家豚)’ 대신에 ‘돈견(豚犬)’, ‘돈아(豚兒)’, ‘견자(犬子)’, ‘소아(小兒)’, ‘소견(小犬)’, ‘소돈(小豚)’ 등⁸⁰⁾ 단어들을 쓰고 있다.⁸¹⁾

‘노청(老靑)’과 ‘제필출취침차(祭畢出就寢次)’라는 표현도 아주 흥미롭다. ‘노청(老靑)’은 한국이나 중국을 막론하고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이다.⁸²⁾ 애경(愛瓊) 등이 소랑을 만나서 끌어안고 울면서 하는 말⁸³⁾에 ‘노청(老靑)’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번역문에서 ‘노청실랑지후(老靑失娘之

77) 정학성, 앞의 책, p.49.

78) 국립국어연구원 편, 앞의 책(상), p.16.

79) 위의 책, p.55.

80) 劉宏麗, 앞의 논문, pp.45-55.

81) ‘중국기본고적고’에서 명청(明清) 시기 문학류(文學類) 작품을 대상으로 ‘가돈(家豚)’을 검색해봤을 때 도합 34군데에서 출처를 찾을 수 있었지만 ‘가돈(家豚)’이란 단어를 독립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가돈견(我家豚犬)’, ‘오가돈견(吾家豚犬)’ 등 합성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82) ‘중국기본고적고’에서도 ‘노청(老靑)’이란 단어가 들어간 용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83) (愛瓊等)相與抱持而哭曰：“阿娘不死，從何處來乎。老靑失娘之後，皇皇者久矣。” (정학성, 앞의 책, p.56)

後)’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가씨를 잃은 후”⁸⁴⁾로 번역되어 있다.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한 타당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입장을 바꾸어 필자가 ‘늙은이나 젊은이’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노청(老靑)’이란 표현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국어의 언어적 관습이 몸에 배인 필자로서 얼핏 비슷한 뜻을 가진 ‘노소(老少)’나 ‘장유(長幼)’, ‘노소(老小)’ 등 표현이 떠오르긴 하지만 ‘노청(老靑)’이란 단어는 아주 생소하며 소설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중국어의 언어적 관습의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는 듯하다.

또한 ‘제필출취침차(祭畢出就寢次)’⁸⁵⁾는 ‘제를 마치고 나와서 취침하려던 차’라는 한국어의 어순에 꼭 들어맞는 다분히 한국적인 문장으로 보인다. 문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소설에는 이 외에도 ‘무식비복지설(無識婢僕之說)’⁸⁶⁾, ‘병계선서이진부인전(并桂仙書以進夫人前)’⁸⁷⁾ 등과 같은 한국적 색채가 짙은 어휘나 문장들이 많으며 이런 것들은 <유소량전>이 충분히 한국 소설일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라고 하겠다.

앞서 서술했던 공간 배치 양상과 호칭 그리고 어휘 관련 문제점들을 필사자의 오기나 개작 여부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국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공간 배치와 호칭, 어휘 면에서 생긴 텍스트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필사자의 오기나 혹은 개작 결과로 추정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일 수 있다. 또 현재까지 다른 이본을 확인할 수 없는 유일본이라는 점, 『신독재수택본 전기집』에 수록된 중국 작품을 개작한 <왕시봉기우기(王十朋奇遇記)>나 <왕경룡전(王慶

84) 위의 책, p.46.

85) 祭畢出就寢次, 招孝英, 請崧會敘曰…… (위의 책, p.51.)

86) 崧曰:“無識婢僕之說, 或合情理, 願慈闈試思焉.” (위의 책, p.52.)

87) 崧翌朝促裝而歸, 并桂仙書以進夫人前, 具道桂仙宋郎同會之事. (위의 책, p.56.)

龍傳)>에 비해볼 때 통속적 취향이 부족⁸⁸⁾하고 극적인 서사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작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국적 문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IV. 결론

이상으로『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에 유일본으로 전해지는 <유소랑전(劉少娘傳)>의 국적 문제를 검토하여 이 작품이 한국 소설임을 밝혔다.

먼저 <유소랑전>이 원작의 출처나 원전을 중국에 두고 있다고 보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 검토하면서 그 근거가 부족함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 문헌에서 <유소랑전>과 유사하거나 혹은 원전이 될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방증으로 국적 재론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작품속 공간 배치 양상을 고찰하여 중국의 실제 지리적 공간과의 차이점을 구명하였다. 소설에 등장하는 ‘남토(南土)’, ‘남주(南州)’, ‘남중(南中)’, ‘월계(越溪)’, ‘금릉부(金陵府)’ 등 지명이나 명칭에 대한 작가의 착오적 인식과 중국의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이동 경로에 대해 논의하면서 <유소랑전>의 작가는 중국의 지리·역사적 배경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작품에 나오는 호칭과 어휘 사용을 중국의 언어적 관습과의 대비 속에서 고찰하였다. <유소랑전>에서 유소랑은 자신을 겸칭하면서

88) 정학성, 앞의 논문(2003), p.122.

‘소녀(少女)’와 ‘소제(少弟)’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언어적 관습에 맞지 않는다. 이외에도 소설에는 ‘가돈(家豚)’, ‘노청(老靑)’, ‘제필출취침차(祭畢出就寢次)’ 등 중국의 언어적 관습과 차이를 보이는 어휘나 표현들이 많다. 이런 한국적 색채가 짙은 어휘와 표현들은 <유소랑전>이 충분히 한국 소설일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로 된다.

본고에서는 <유소랑전>의 국적 문제에만 주목해서 다루다보니 아직 작품이 지니고 있는 여타 특징과 소설사적 의의를 구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유소랑전>에는 특이하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데 작품의 특성 및 그 소설사적 의의에 대한 논의는 후속 논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국립국어연구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상·중·하, 두산동아, 1999.
- 李好閔, 『五峯先生集』, 한국고전종합DB.
- 장효현·윤재민·최용철·심재숙·지현숙·이기대, 『(校勘本 韓國漢文小說) 愛情世態小說』,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7.
- 정학성, 『역주 17세기 한문소설집』, 삼경문화사, 2000.
- 江蘇省社會科學院 編, 오순방 외 역,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1-5卷,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3-1999.
- 教育部重編國語辭典編輯委員會 編, 『(重編)國語辭典』1-6, 臺灣商務印書館, 1982.
- 史爲東 主編, 『中國歷史地名大辭典』上·下,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石昌渝 主編, 『中國古代小說總目』1-3卷, 山西教育出版社, 2004.
-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外二種)』, 中華書局, 2012.
- 吳承恩, 『西遊記』, 中國基本古籍庫DB.
- 王欽若, 『冊府元龜』, 中國基本古籍庫DB.
- 李 白, 『李太白集』, 中國基本古籍庫DB.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 『現代漢語詞典(第6版)』, 商務印書館, 2012.
-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編, 『中文大辭典(普及本)』1-10,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5.
-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 編纂, 『漢語大詞典(第二卷)』1-13,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漢語大詞典出版社 聯合出版(海外版), 1987-1993.

2. 논문 및 단행본

- 박동욱, 『해환 李用休 烈女傳의 입전 의식』, 『동방학』1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4, pp.47-64.
- 박일용, 『조선후기 傳과 小說을 통해서 본 事實과 虛構, 그리고 소설적 眞實』, 『中國小說論叢』13, 한국중국소설학회, 2001, pp.193-210.
- _____, 『<주생전>의 공간 구조와 환상성』, 『고소설연구』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pp.139-166.
- _____,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중국의 강남(江南) 체험과 강남 형상』, 『한국고전연

- 구28,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pp.5-54.
- 신태수, 『외국공간에 대한 16세기 조선 문인의 심상지리와 작품화』,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pp.5-39.
- 李燦 著,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1, p.24.
-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pp.1-347.
- 임치균,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 고찰』, 『우리문학연구』31, 우리문학회, 2010, pp.87-116.
- _____, 『<곽씨효행록(郭氏孝行錄)> 연구』, 『고소설연구』6, 한국고소설학회, 1998, pp.189-216.
- _____,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35, 한국고전문학, 2009, pp.355-384.
- 정 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22, 한국고전문학학회, 2002, pp.281-306.
- 정학성, 『『신독재수택본 전기집(愼獨齋手澤本傳奇集)』의 17세기 소설집으로서의 성격과 위상』, 『고소설연구』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pp.5-31.
- _____, 『전기소설 <유소랑전(劉少娘傳)> 연구』, 『고소설연구』16, 한국고소설학회, 2003, pp.101-129.
- 조희웅, 『고전소설 연구보정』상, 박이정, 2006, pp.737-738.
- 최용철·박재연 輯錄, 『韓國所見中國通俗小說書目』, 『중국소설회모본』,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pp.209-260.
- 郭沫若 主編, 『中國史稿地圖集』下, 中國地圖出版社, 1990, pp.71-72.
- 譚紅梅, 『朝鮮朝漢文小說男性作家筆下的女性形象』,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43卷 第5期, 2010, pp.59-63.
- 劉宏麗, 『明清敬謙語研究』, 山東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pp.1-215.
- 韓在均, 『漢韓親屬稱謂中敬·謙稱的對比』, 『漢語學習』2000年 第1期, 2000, pp.27-30.

Abstract

Discussion of Nationality Issue in <Yusorangleon>

Woo, Hwa

This study discussed the nationality issue of <Yusorangleon (劉少娘傳)>, which is the only existing piece of 『Sindokjaesutaekbon Jeongijip (慎獨齋手澤本傳奇集)』, to clarify that this novel is a Korean novel.

Preceding studies have discussed that the source or origin of <Yusorangleon> is China, but the evidence of those studies were not enough to conclude the nationality issue. Also, there is no piece or related record found in the Chinese literature that is similar to <Yusorangleon> or can be its source. Therefore, the nationality issue of <Yusorangleon> shall be rediscussed. In order to clarify the nationality issue of <Yusorangleon>, this study concentrated on its text to explore the arrangement of space, names, and use of vocabularies for evidence.

The arrangement of space in <Yusorangleon> is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e actual geographical spaces of China. Considering the author's misunderstanding of the names of places, such as 'Namto (南土)', 'Namju (南州)', 'Namjung (南中)', 'Wolgye (越溪)', and 'Geumneungbu (金陵府)' in the novel, and the route of travel that does not match the actual route of China, e.g., Jeolgang (浙江) and Geumneung (金陵) must be passed to travel from Guangdong (廣東) to Namnyeong (南寧), it was found that the author of <Yusorangleon> is a foreigner who is not familiar with the geography or history of China.

Also, many names and vocabularies in <Yusorangleon> do not match the linguistic customs of China. Yusorang in the novel call herself 'Sonyeo (少女)' and 'Soje (少弟)', but these expressions do not match the linguistic customs of China. Other vocabularies and expressions that do not follow the linguistic customs of China include 'Gadon (家豚)', 'Nocheong (老青)', and 'Jepilchulchui

chimcha (祭畢出就寢次)'. These vocabularies and expressions that reflect Korean character are substantial evidence tht <Yusorangjeon> can possibly be a Korean novel.

Key Word : Yusorangjeon, Sindokjaesutaekbon Jeongjip, Nationality Issue, Arrangement of Space, Cheonjido (天地圖), Linguistic Customs

오화

소속 : 중국 揚州大學校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주소 : (461-8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818번지

전화번호 : 010-8251-5168

전자우편 : wuhua82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
--